

빛 허덕이는 농부, 전기료 낼 돈도 없다

광주·전남 농협 조합원 강제집행 5년간 770억... 7월 기준 전기료 연체 농가 1만7000호 '전년비 2배'

농산물의 불안정한 수급과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악재가 겹치면서 광주·전남 농가 경제가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여 동안 광주·전남 농협 조합원들이 빛을 갚지 못해 강제집행된 금액이 700억원에 넘었고, 올해 7월 말 기준 전기요금을 연체한 농가는 전년도의 2배 수준인 1만7000호에 달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지역본부별 전기요금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광주·전남지역 농사용 전기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호수는 1만6989호로, 지난해 말(8246호)보다 106.0%(8743호) 급증했다.

이들의 체납액도 같은 기간 12억5360만원에서 16억7250만원으로, 반년 새 33.4%(4억1890만원) 늘었다.

광주·전남에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농민 수는 2019년 말 7543호에서 2020년 말 7936호, 2021년 말 8246호, 올해 7월 말 1만6989호로 등으로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월평균 100만원 이상 요금을 내는 고액 가구에 2개월 이상 연체된 사례는 지난해 말보다 34배 넘게 뛰었다.

지난달 말 기준 광주·전남 농사용 전기요금 고액 체납 고객은 582호로, 지난해 말(17호)의 34.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고액 체납액은 8400만원에서 23억 1600만원으로, 27.6배 수준으로 늘었다.

광주·전남 농가 경제 악화는 농민들의 부채 상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지역 농·축협 조합원에 대한 강제집행 금액은 광주 10억2700만원·전남 756억2500만원 등 766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빛을 갚지 못해 강제집행을 당한 지역 농·축협 조합원은 광주 33건·전남 1575건 등 1608건에 달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증시 다시 급락

코스피가 11일 또다시 큰 폭으로 내려 22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0.77포인트(1.83%) 내린 2192.07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2200선 아래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달 30일(2155.49) 이후 5거래일 만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3101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070억원, 1933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보다 22.8원 오른 달러당 1435.2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 거래일 대비 상승 폭 기준 2020년 3월 19일(40일 상승)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연달아 금리 인상 에 나서고, 러시아의 대규모 우크라이나 공습으로 확진 가능성이 대두되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다. /연합뉴스

스마트하지 않은 여수국가산단

스마트공장 보급률 4.3%... 전국 7개 산단 중 최하위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스마트공장 보급률이 전국 7개 스마트그린산단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공장 보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여수산단 입주업체 278개 중 스마트공장 도입업체는 12개로, 보급률이 4.3%를 나타냈다.

전국 평균 보급률은 9.8%(3만5291개사 중 3471개사)로, 여수산단은 평균을 밑돌뿐더러 7개 스마트그린산단 중 가장 낮았다.

여수에 이어 반월시화산단 6.1%(1만9242개 중 1167개)와 인천남동산단 8.2%(7130개 중 583개) 등 순으로 보급률이 낮았다.

반면 경남과 대구·경북지역에서 스마트공장 평균 보급률은 20.4%로,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으로 높았다.

대구성서산단 보급률이 24.6%(2787개 중 685개)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여수산단 보급률의 5.7배 수준이다.

이어 창원산단 18.5%(2622개 중 도입 485개), 구미산단 18.1%(2101개 중 381개) 등 순으로 높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경우 생산성이 평균적으로 28.5% 증가하고 품질은 42.5% 향상된다고 밝혔다. 원가도 15.5% 감소하는 효과를 보면서 기업당 매출은 7.4% 향상된다고 알려졌다. 이외 고용 2.6명 증가, 산업재해 6.2% 감소 등 도입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스마트공장 도입 때 각 산단 입주업체들이 누리는 효과가 크지만, 보급이 대구·경북과 경남에 집중되면서 인천, 여수, 반월시화산단이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평균 보급률 밑도는 TK·경남 외 지역에 대한 보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엄빠찬스' 미성년 임대소득 2549억

3000명 5년간 월 150만원씩 벌며... 민홍철 의원 "변칙 증여 조사"를

최근 5년간 미성년자들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2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임대인의 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작년에는 약 3000명이 556억원대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1851만원이고,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154만원 수준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성년자가 신고한 임대소득은 2548억8300만원이다.

미성년 임대인 수와 임대소득은 2016년 1891명·380억7900만원에서 2017년 2415명·504억 1900만원, 2018년 2684명·548억8600만원, 2019년 2842명·558억8100만원, 2020년 3004명·556억1800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미성년 임대인 수는 4년 전의 1.6배, 임대소득은 4년 전의 1.5배 규모였다.

제작년 미성년 임대소득 현황을 부동산 유형별로 보면 상가를 임대한 경우는 2754명이고 이들의 평균 연 임대소득은 1869만원이었다. 주택을 임대한 미성년자는 113명으로 평균 1377만원을 벌었다.

민 의원은 "부모 찬스를 이용한 미성년 임대인

미성년자 임대소득 추이



과 이들의 임대소득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의 부동산은 사실상 부모의 부동산인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변칙 증여·증여 등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게 아닌 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다양한 사과 맛보세요 11일 광주신세계 직원들이 본관 지하 1층 푸드마켓에서 오는 16일까지 벌이는 '가을 제철 과일 모음전'에서 '고급 품종'으로 꼽히는 감홍사과와 아리수 사과, 황금사과, 사과대추 등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코로나 2년 광주·전남 신규 보증 천 곳 늘어

증가율 전국 최고

코로나19가 국내 확산한 2년여 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 대출을 받은 광주·전남지역 업체가 1000곳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보증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광주·전남지역 보증지원 업체는 1만3226개사로, 지난 2020년 9월 말(1만2189개사)보다 8.5%(1037개사) 증가했다.

광주·전남 보증업체 증가율은 전국 9개 권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광주·전남에 이어 부산·울산·경남이 8.1%(3만 3323개사→3만6027개사)로 뒤를 이었고, 서울·경기·인천 6.6%, 대전·충남 6.0%, 충북 5.5%, 전북 4.8%, 대구·경북 4.5%, 제주 1.7%, 강원 1.7%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지원업체에 대한 보증지원 잔액은 지난 8월 말 기준 3조4046억원으로, 2년 전(2조 9964억원)보다 13.6%(4082억원) 증가했다.

김한규 의원은 소외된 중소기업들을 위한 보증 지원 사업이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보증지원이 수도권 중심으로 몰리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보증지원 금액의 절반 이상(52.2%)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됐다.

특히 창업기업 보증지원 금액의 경우 수도권이 5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증연계투자 금액 비중은 68.4%에 달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인 만큼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기업 발굴·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금호타이어 '로드벤처 AT52'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 본상

금호타이어는 '로드벤처 AT52'(Road Venture AT52) 제품으로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Good Design Award) 2022'에서 '본상'(Winner)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굿 디자인 어워드(G-Mark)는 디자인의 가치와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일본 최고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으로 꼽힌다.

본상을 수상한 '로드벤처 AT52' 제품은 돌길, 진흙길 등 험한 북미의 오프로드 지형에 강한 성능을 갖춘 온-오프로드 겸용 타이어다. 픽업트럭과

포츠유틸리티차(SUV), 지프(Jeep) 운전자 주 고객이다.

이 제품은 튼튼하고 같은 형상의 솔더 블록 디자인이 트레드에 적용돼 오프로드 지형에서 견인력을 향상했다.

5가지 길이의 피치(pitch) 블록 배열로 일반 도로에서도 편안하고 조용한 주행을 가능하게 했고, 내구성과 마모성능뿐 아니라 직진 주행성능까지 향상했다고 금호타이어는 설명했다.

다중 각도의 사이프(sipe) 및 지그재그 홈 디자인은 겨울 환경에서도 안전한 주행을 가능하고, 사이드월에는 사이드월 보호 블록 디자인을 적용시켜 강인하고 공격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킴과 동시에 외부 자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타이어 손상을 최소화해 펑크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조만식 금호타이어 연구개발본부장은 "일반적으로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 수상건은 제품의 기술력과 비즈니스적인 항목뿐만 아니라 산업에 새로



운 가치를 제시하고, 사용자에게 매력적이고 공감을 얻는 사회적 항목 또한 중요하다"며 "금호타이어의 디자인 어워드 수상은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혁신 시대의 흐름에 맞춘 연구개발의 성과"라고 말했다. /백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92.07(-40.77)
↓ 코스닥	669.50(-28.99)
↑ 금리(국고채 3년)	4.342(+0.066)
↑ 환율(USD)	1435.20(+22.80)

광주은행, 하반기 소상공인 특례보증 10억 출원

광주은행이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에 10억원을 출원하면서 총 333억원 규모 특별보증 대출이 시행된다.

광주은행은 최근 이우경 부행장과 강기정 광주 시장이 시청에서 "2022 하반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이번 10억원을 포함해 총 81억6000만원을 출원했다.

광주시는 총 333억원 규모 특례보증 대출을 시행하며, 1년간 2.0% 대출금리를 매워주기로 했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광주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지역일자이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5년 이내이다.

이우경 광주은행 부행장은 "가중된 지역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